

불교문화페스티벌 23일 법주사서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4월 23일 '불교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내륙의 숨은 보석, 정정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0 대중청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전문 스님과 연구원들 20여 명이 사찰음식 조리 시연을 펼치며, 25개 기의 사찰음식 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108범종 타종식과 법고경연대회 등이 펼쳐져, 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편, 법주사는 3월 25일 경내 공현당에서 교구총회를 열고 주요 일정을 의결했다. 법주사는 4월 21일 보은군 노인위안잔치, 5월 9일 충북 노인기원 대법회, 16일 무심천 유등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티 성금 1500만원을 총무원에 기탁했다. (043)540-3615

이은정 기자 · 해철 충청지사장

호스피스센터 창립 대구사원원 신도회

죽음을 앞둔 환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여생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호스피스 활동이 대구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펼쳐진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도회(회장 임문우)는 4월 10일 대구시 남구 불교대구회관에서 '대구 불교 호스피스센터' 창립 발대식을 개최한다.

불교회관 5층 연합회 사무실에 들어서는 호스피스센터는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불교계 호스피스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센터장을 맡은 임문우 신도회장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모아 불교 호스피스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한·태 불교 교류 활성화 최선”

한·태 불교문화포럼 경주서... 2010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전행사



4월 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0 한·태 불교문화포럼에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2010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사전 특별행사인 '한·태 불교문화포럼'이 '한국과 태국 간 불교문화 교류 및 협력'을 주제로 경주에서 개최됐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3월 31일~4월 2일 경주 불국사·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에서 한·태 불교문화포럼을 개최했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성타 스님, 태국 백만불사 주지 파람하바나비리 악촌 스님을 비롯해 백상승 경주시장,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본부장, 태국 문화부 피라나이 대외협력국장, 라비니치 총무국장 등 한국·태국의 불교계, 학계, 문화계 인사 300여 명이 참가했다.

김관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방콕-경주엑스포를 한국과 태국의 우호와 교류, 협력증진을 물론 양국의 전통과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명품문화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며 "한·태 불교문화포럼이 불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큰 결실로 연결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4월 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불교 석학 루이스 랭카스터(美 UC버클리대)교수가 '불교문화 교류의 의의와 한국·태국간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방콕-경주엑스포는 양국 간 오래된 전통적 유대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동쪽에 꽃피웠던 영향력의 새로운 이해와 증진을 조성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랭카스터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은 국경과 인종, 대·소승을

초월한 진리이며 이를 실천하는 한 방편은 대중이 협력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한 한국과 태국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태국 승왕(僧王) 비서인 사키아 스님(마하마쿠 불교대), 숭본 박사(쑤라퐁콘대) 등이 양국의 불교전통과 문화, 불교와 사회, 불교문화 교류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에 이어 경주엑스포공원 내 엑스포문화센터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과 계승'을 주제로 문화예

술 공연이 열렸다. 불국사 합창단에 이어 영상제가 공연됐다.

영상제는 한국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 육·해·공·군 및 의료지원단으로 참전한 1만5000명의 태국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136명의 전몰용사와 타계한 참전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특별 헌정행사로 마련됐다.

2일 참가자들은 불국사 환영법회에 참석한 뒤 석굴암 등 경주지역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이에 앞선 3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과 태국의 불교 문화 및 학술교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손동진 총장을 비롯해 성본·진월 스님, 이봉춘·김성철 교수 등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들과 태국 카세살트 대학 필푸양 박사 등 태국 불교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학술교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손동진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의 불교문화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진정자·이석주씨 등 표창

백제불교회관 개관 9주년 기념법회

대전 불교계의 축으로 자리한 백제불교회관이 개관 9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26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마곡사 대외협력국장 해우 스님, 한밭 불교회장 지철 스님, 대전비구승가 회장 대연 스님, 청우사 재원 스님 등 지역불교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前 방송인 진정자씨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이석주, 이종애씨가 포교원장 표창을, 김순영, 신언숙씨가



해철 충청지사장

마곡사 주지 표창을, 허윤호, 손승연 씨가 관장표창을 각각 받았다.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국 스님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전불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마음언어 들리도록 용맹정진”

대불련 석종사서 새내기 템플스테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경호, 이하 대불련)는 3월 26~28일 중주 석종사에서 '2010 KBUF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젊은, 항상 가슴 떨리는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낯선 나와와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전국 대학에서 모인 10학년 새내기 등 50여 신입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대불련 템플스테이는 2박3일 동안 새벽 예불을 비롯해 '나, 낯설게 만나기' 참선교육, 범우 찾기, 보양삼매론 사경 정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 학생들의 신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27일에는 석종사 금부선원장 해국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법문으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해국 스님은 "경쟁과 시험 등 사회 체계를 우주의 법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항상 계(威)를 수지하고 마음의 언어가 들리도록 용맹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경상대 10학년 김동환 법우는 "대학에 막 들어 온 새기로서 학교 공부도, 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박경호 대불련 회장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항상 수행정진 하는 대불련이 되겠다. 최선을 다하는 학생 집행부와 지도위원단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예산 수덕사 '수덕사 선 미술관' 개관

예산 수덕사(주지 응산)는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2주기를 맞아 선 미술관 개관식 및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로의원 혜정, 정무, 혜정, 고우, 해승, 법흥, 월탄, 종진, 명선, 활안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등 종단 원로,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이응노, 장욱진, 허백련, 최후,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화백 등과 인연이 있는 곳으로 향후 누구나 편히 찾고 활동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선개관식 이후 수덕사 활강정루로 자리를 옮겨 원담 스님 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선미술관은 개관기념으로 원담 스님 유작전을 개최 중이다.

안성 활인선원 제3회 참선대중화선회 개최

안성 활인선원은 4월 9~11일 '제3회 참선대중화선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회는 '참나를 찾는 지름길, 행복을 찾는 가장 편안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화두참구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활인선원은 "이번 선회는 참선의 생명이랄 수 있는 화두참구에 무게를 뒀다. 자신의 삶을 바로보기 위한 화두참구에 혼신을 다하자"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31)1644-5266

대중결사 거제 금강사서 아카데미 개최

청정승가대중결사대표 진오는 4월 5일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에서 '경남지역 포교현황'을 주제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이 '거제 금강사의 포교 경험과 그 성과'를, 김태종 포교사가 '경남지역 포교실태 및 종교현황'을, 울산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이 '새로운 명상 프로그램 소개'를 각각 발표했다. (02)732-1209

대구불교발전위원회 발족

대구에서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불교발전 모임이 결성돼 주목받고 있다. 영도벨벳 류병선 회장(대구광역시 신도회 회장)과 건흥산업 이지철 대표 등 기업인 30여 명은 3월 29일 대구 인터블고 엑스포에서 '대구광역시 불교발전위원회'를 창립했다.

대구 불교발전위원회는 앞으로 불자인재를 양성하는 연구 지원사업 등 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이 참석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불자 기업인들의 뜻이 지역 불교계를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국대 국내 최초 IPTV 고위정책과정 개강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국내 최초로 IPTV 분야 전문교육과정인 'IPTV 고위정책과정'을 개설하고 3월 29일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김원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금기현 전자신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1기 'IPTV 고위정책과정'에는 강승규·안형환 국회의원(문화방송통신위)과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 탤런트 류시원, 이재용 MBC아나운서 등 각계 인사 32명이 등록했다.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륵대(운장대)

법륵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륵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륵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들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륵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륵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륵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륵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 나누어 지출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상감 청자(유리)기공
 ■재료: 순금(999)합금
 ■제작: 유선(유선)기공
 ■크기: 45x10cm
 ■중량: 1.5kg
 ■제작: 30cm
 ■중량: 2.5kg